**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이사야 54장 10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내가 딛고 서있는 땅이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평소에 우리는 잘 하고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그런 일은 얼마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구촌 어딘가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거나, 멀쩡하던 건물이 무너졌다는 등의 소식을 우리는 잊을 만하면 한번씩 접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분들을 보며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 나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믿으며, 나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곧 다시 우리는 예전처럼 두 발로 바닥을 힘차게 구르며 생활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터전이라는 것은 내가 발을 딛고 서있는 땅이나 건물 바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터전’이란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 다시 말해 내 일상의 삶을 떠받쳐주거나 유지시켜주고 있는 무언가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가정이나 직장, 교회, 국가처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내 삶의 터전이 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근거와 정체, 내 삶의 안정이 거기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적 터전이 흔들릴 때, 우리의 삶은 힘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한편,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가치나, 확실하다 믿고 있는 이념도 우리 삶의 터전이 될 수 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유럽 사람들은 인간 이성에 높은 가치를 두었고, 인류의 진보에 대해 엄청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들이 지니고 있던 그 가치와 신념은 대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럽 지성인들에게 그 일은 기존에 그토록 견고해 보이던 삶의 터전들이 크게 흔들리는 위기상황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그 유럽문명의 터전들이 그리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을 용감히 지적하던 사람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터전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이 거기서 끝날 것만 같은 막연한 두려움 말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무언가를 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어쩌다 우연히 주어진 것이든, 내가 노력으로 구축한 것이든, 그 터전 위에서 한동안 안정된 삶을 누리며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도록 나와 내 가족을 떠받쳐줄 것 같던 삶의 터전이 어느 순간 흔들리게 될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때 비로소 실감하게 될 지 모릅니다.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던 그 터전이 실상은 그리 믿을 만하지 못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당연히 우리는 또 다른 삶의 터전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의 것과 비슷한 수준의 또 다른 터전을 찾아 급한 대로 거기에 짐을 푸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변함없이 든든히 지지해줄 진정한 삶의 터전을 찾아, 거기에 믿음의 기둥을 깊이 박아야 합니다. 그런 진정한 삶의 터전이 그렇다면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의 터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이런저런 터전들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며, 그것들을 능히 흔드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흔드심을 통해 우리를 더 온전한 터전 위에 다시 세우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이를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 같이 낡으리니 의복 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시 102:25-28)**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 24장에서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 같이 흔들리며 그 위의 죄악이 중하므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사야 24장 18-20절)**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준엄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 심하게 흔들릴 것이라 합니다. 그냥 잠시 고통을 겪는 수준이 아니라, 혼자서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멸망을 경험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예언대로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587년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안정감이 심각한 손상을 입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백성과 함께하신다는 믿음도 그들 안에서 크게 흔들립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처럼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들의 죄악이 너무 무거워서 넘어져 일어서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 북이스라엘은 소수의 특권층이 부를 누리며 사치했고, 제사장은 타락하여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며 백성에게 율법을 바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나안의 종교풍속을 따라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흐려지며 혼합주의적인 종교형태가 성행했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죄악이 관영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열매 없는 형식적인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으며, 공의와 공평이 전 사회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굽어져 있었습니다. 뇌물로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릇된 재판이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주변 강대국과 동맹하여 난국을 타개하려는 불신앙적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메시지였습니다. 선지자의 영혼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자기 시대의 종말, 자기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길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계획 이면에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있음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그 이전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진정한 삶의 터전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신학자 폴 틸리히는 다음과 같이 주석합니다.

**“땅이 늙고 낡아질 때, 나라와 문화가 소멸해갈 때, 영원하신 분이 그의 무한한 존재의 옷을 갈아 입습니다. 그분은 모든 터전들이 놓인 그 위에 놓인 터전입니다. 그리고 이 터전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고, 변화될 수 없고, 흔들릴 수도 없는, 영원히 지속되는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멸과 우리 세계의 붕괴를 통해 드러납니다. 유한한 것들의 경계선에서 무한한 것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터전의 흔들림을 직면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폴 틸리히, *흔들리는 터전*, 1948)**

이사야는 바로 이 체험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선지자로서의 삶은 ‘흔들리는 터전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터전과 만나는 체험’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주전 742년, 남유다의 웃시야 왕이 죽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웃시야 시대에 유다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유다인들에게 다만 한 가지 골치 아픈 문제는 웃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웃시야는 주거의 제안을 받아야 했고 그 아들 요담이 섭정을 해야 했지만, 그의 이름은 계속해서 유다의 국력과 안정의 상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이 웃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 아들 요담은 무력하였고, 주변국 앗시리아의 위협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근심 속에서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힙니다.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유다를 떠받치고 있던 것은 웃시야 왕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백성이 부정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웃시야 왕의 문둥병은 당시 유다의 국력과 안정의 겉모습 뒤에 가려져있던 백성들의 비참한 영적실상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싸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어 그는 죄 사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 방황하는 세대를 향해 외칩니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7:9)**

그러므로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우리는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 삶의 진정한 터전이 그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터전이 되시는 하나님께 내 믿음의 기둥을 제대로 깊이 박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우리를 그 진정한 터전 위에 견고히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이라 하겠습니다. 그처럼 터전이 흔들리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기존의 터전 위에 안주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우리가 무엇보다 해야 할 일은 이사야처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변함없는 은혜를 다시 체험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서 포로생활 중이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십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54:10)**

높은 산들이 흔들리고 무너져버린다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산등성이로 이어지는 언덕들은 한 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우리 인생을 든든히 떠받혀주는 견고한 반석이 되십니다. 내가 딛고 서서 의지하던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졌을 때 비로서 더 분명히 그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천 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당장에 세상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길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안정된 삶을 위한 눈에 보이는 확실한 터전을 제공해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기대를 철저히 배반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위에 발 딛고 있던 위태롭고 의심스런 삶의 터전들을 가차없이 흔드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삶의 터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로운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삶의 터전으로 제공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곳은 이 땅의 어느 곳이지만,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삶을 든든히 떠받쳐주고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실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히브리서 12:22-24)**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다는 것이며, 우리가 바로 그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거룩한 실체에 압도되어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이런저런 삶의 터전들보다 더 분명하게 인식되고 경험되는 그들의 실제적 삶의 터전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삶의 터전 삼아 살아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선물로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기서 “은혜를 받자”라고 번역된 부분은 “은혜를 붙들자,”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자,” “은혜 안에서 감사하자” 등의 의미로 새겨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흔들림 없는 사랑과 신실하신 약속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분명 이것은 우리의 노력을 요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의 중요성을 너무도 자주 잊거나 소홀히 여깁니다. 그런 식으로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 공허한 마음 속에서는 쓴 뿌리가 자랍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경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히브리서 13:5-6)**

원리는 단순합니다.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서려는 노력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축복의 자리를 발로 차버리는 망령된 삶을 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의 거짓 우상들을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 가까이로 부르시는 때입니다. 바로 그 때가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직 이 터전 위에서 우리는 참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이 터전 위에서 우리는 마땅히 나아가야 할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삶의 터전으로 약속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붙드십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삶을 사십시다!

교회력으로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반석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과 삶에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견고히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터전 위에서 매일의 삶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살기 원하는**

**꼬빌리시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체코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